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실패한 자리에서 차려진 조찬”

요한복음 21:15-19

현대인들은 성과와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가면 증후군'과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수제자 베드로 역시 자신의 결심과 열정(성과)을 믿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와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자책하며 과거의 어부 자리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그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대제사장 뜰의 '숯불'과 똑같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따뜻한 조찬을 먹이시며 그의 트라우마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성과나 결단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세상은 금이 간 그릇을 버리지만, 부활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깨어진 실패(질그릇)의 틈 사이로 은혜의 빛을 흘려보내십니다.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숯불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다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소그룹 나눔 질문

- [가면과 수치심]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나의 진짜 연약함이나 실패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감추려 했던 경험(가면 증후군)이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나의 '성과'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 [은혜의 숯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숯불을 피워 밥을 먹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셨습니다.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당신의 과거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에 어떤 위로를 줍니까?



✠ 교회 소식 ✠

☞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배가 되는 기쁨 나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내가 기도하고 초대한 그 사람과 나란히 앉아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그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하며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봅시다.

- 예전예배학 제9강 : 19일(오늘) 1부 예배 후, 기도실

☞ 정기당회 : 26일(주) 오후 2시, 본당

☞ 임직예식 : 5월 10일(주) 오후 3시, 본당

☞ 모임

- 한길 여전도회 월례회 : 19일(오늘) 2부 예배 후, 영아유치부실

- 한빛 여전도회 월례회 : 19일(오늘) 2부 예배 후, 기도실

- 한샘 여전도회 월례회 : 19일(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 한누리 남선교회 월례회 : 19일(오늘) 2부 예배 후, 남선교회실

- 독거노인 반찬 배달 : 23일(목) 오전 10시, 친교실

- 일대일양육자기도회 : 24일(금) 오전 10시 30분, 남선교회실

☞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대상 :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균형 잡힌 이해를 원하는 성도

- 문의 : 길석현 권사

☞ 2026년도 아나바다 선교바자회 : 26일(주) 2부 예배 후, 친교실 교회마당

- 물품수집 : 19일(오늘)까지(문의 : 유명옥 권사)

- 작은 음악회 : 최종걸 은퇴집사(501구역) 색소폰 연주(아외데크)

- 주차 : 해영회관 주차장 이용

☞ 제210회 서울노회

- 총대 : 방승주, 이종서, 황재금, 안일현 장로

- 일시 : 23일(목) 오전 9시~24일(금) 오후 5시, 신일교회

☞ 소허당 전시 : 차미 외 1인(Duo), 26일(주)까지

☞ 식당봉사

- 19일(주) : 김연옥 박진령 / 김형주 이강민

- 26일(주) : 아나바다

☞ 교우소식

- 감사 : 신선자 은퇴권사(302구역) 가정에서 점심식사 제공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취 오며, 우리를 부활의 날로 인도하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이 성자 예수를 가둘 수 없음을 기뻐하며, 그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심을 기뻐합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를 따르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중)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회의와 절망에서 일으키시고 우리 발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에 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표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파송

<부활절 성만찬>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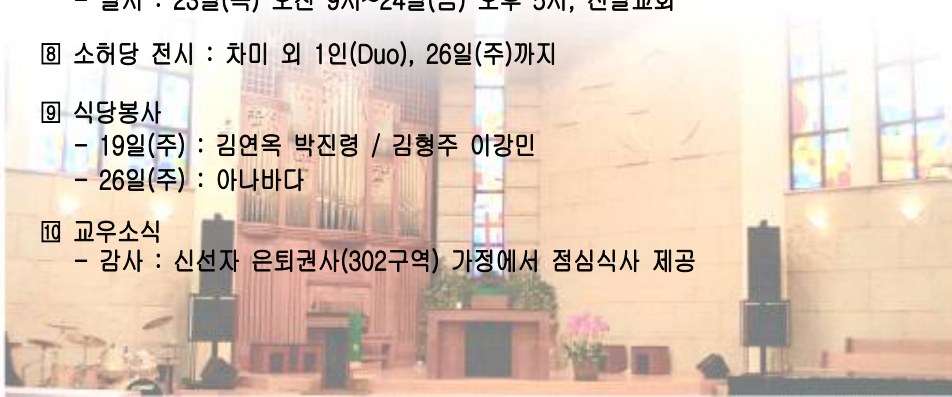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엠마오의 식탁”

/ 렘29:10-14; 롬8:18-23; 눅24:28-32 >



# 부활절 셋째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 개회예전

###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 말 은 이

### <성경의 선언> (시 105:1-5)

(목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 <개회송> (오르간)

### <오늘의 기도>

(목사) 생명의 주님, 죽음을 감수하심으로 무덤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만백성을 주께 이끄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우리의 인성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오십 일 동안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선포합니다.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찬양을 주께 돌립니다.

(회중) 아멘.

찬 송 ..... 71장 ..... 다 같 이

### <죄의 고백과 용서>

####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잠시 묵상기도)

#### (2) 죄의 고백

(다같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흠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악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 말씀예전

###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 314장 .....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 이사야 42:1-5(1017) ..... 권은경 피택권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 고린도후서 4:7-11(289) ..... 권은경 피택권사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씬 목 상 >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 요한복음 21:15-19(185) ..... 장금녀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 설 교 > ..... 『실패한 자리에서 차려진 조찬』 ..... 황영태 목사

###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 장금녀 권사

찬 송 ..... 273장 .....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